

“근로자 안전 도시 만들고 순천형 일자리 실현”

순천시, 민선8기 첫 노사민정협의회...공동선언 2건 채택 경제위기 극복 살기 좋은 ‘일류 순천’ 만들기 방안 등 모색

순천시가 근로자가 안전한 일류 순천과 순천형 일자리 모델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순천시는 최근 순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민선 8기 첫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근로자가 안전한 일류 순천·순천형 일자리 모델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올 한해 순천시 노사민정협의회는 각종 회의와 간담회를 열어 역량을 강화하고 주요 의제를 고민했다. 순천시 노동, 고용 현황 조사 용역 및 순천시 일자리 포럼 등을 개최해 지역일자리 창출과 노사민정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노관규 순천시장과 노동계, 경영자단체, 시민단체 등 노사민정협의회 위원과 실무협

의회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순천의 노사문화를 고려했다.

협의회는 2022년 주요성과 보고에 이어 ‘근로자가 안전한 일류 순천 만들기’와 ‘순천형 지역상생형 일자리 모델 실현’ 등 2건의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노사민정이 함께 채택한 ‘근로자가 안전한 일류 순천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에는 ▲안전한 일터 환경 조성 ▲안전한 일자리 문화 정착 ▲안전한 일자리 창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노사민정은 산업재해 제로(ZERO)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또 ‘순천형 일자리 모델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에는 ▲정주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정 사회적



임금의 실현 ▲마그네슘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내부 상생협력 단가 구현 ▲마그네슘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동시설 확보, 공동인력양성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한다는 의지를 담았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경제 여건 악화와 급격한 노

동환경의 변화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노사민정이 힘을 합쳐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살기 좋은 일류 순천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마술쇼 10일부터 주말 하루 3차례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은 오는 10일부터 31일 까지 주말 이벤트 ‘은종일 판타지’ 마술 공연을 진행한다.

연말을 맞아 기차마을 내 생태학습관 중앙 로비에서 ‘하루 종일 선물처럼 만나는 마술’이라는 콘셉트로 하루 3회 마술 공연을 진행한다.

오전 11시에는 풍선 마술, 오후 2시에는 마술쇼, 4시에는 풍선쇼를 관람할 수 있다.

모든 공연은 관객 참여형으로 진행되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마술쇼 관람 후에는 샌드 크래프트, 라이브 스케치, 로봇 바리스타 등을 체험할 수 있다.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에서는 겨울철 기차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시즌 분위기를 살릴 크리스마스 포토존을 곳곳에 조성했다.

12월 한 달 동안 ‘기차마을은 메리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진행한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여수 웅천동과 소호동을 연결하는 선소대교는 지난 7월 완공돼 개통했다. 선소대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장검과 기막만을 순항하는 요트를 형상화했다.

<여수시 제공>

여수를 빛낸 올해 시정 1위 ‘선소대교 개통’

시, 여순사건 정부 결정·금오도 해상교량 등 10대 성과 선정

여수를 빛낸 2022년 시정 10대 성과 중 선소대교 개통이 1위에 올랐다.

여수시는 올해 전 부서 우수시책 64건 중 1차 내부평가단 서면 심사로 20건을 선정 후,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시민 1634명과 공무원 118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해 최종 10건을 확정했다.

올해 시정 성과는 1위를 차지한 선소대교 개통에 이어 2위는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74년 만에 정부 첫 공식결정, 3위에는 금오도 비렁길을 달려가는

해상교량 건설 추진 확정이 선정됐다.

4위는 민선 8기 1호 공약, 전 시민 일상 회복지원금 지급 완료, 5위는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전국 유일 선정’ 360억원 확보가 차지했다.

6위-10위는 ▲지방상수도 노후관망 정비 현대화 사업추진 ▲24시간 출출한 CCTV 관제로 안전 도시 여수 구현 ▲대한민국 SNS 대상 7년 연속 ‘최우수’, 올해의 SNS 2개 부문 ‘대상’ 수상 ▲박람회장 공공개발을 위한 여수박람회법 개정과 여수세계박람회 10주년 기념행사 성공개최 ▲코로나19 생활 안정 지

원 ‘개인분 주민세’ 전액 감면이 각각 선정됐다.

이 외에도 바닷속 미세플라스틱 제로(Zero)화 시작, 글로벌 산후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공모 선정, ‘관광객 1,000만 명 회복’ 민선 8기 남해안 거점 해양관광 휴양도시 재도약 발판 마련 등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시민의 성원과 2700여 공직자의 노력 덕분에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특히 시민 체감 사업에서 두드러지는 성과를 내 준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수 건설을 위해 내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고흥군, 외국인 일자리 숨통 트인다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지역 선정

고흥군이 법무부가 주관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지역에 선정됐다.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취업 등을 조건으로 특별비자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고흥군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구인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늘고 있어, 외국인 유치 정착과 일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공모사업에 관심을 갖고 대비했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역특화 산업에 적합한 외국인 지역 정착을 유도해 생활인구 증대, 경제활동 촉진 등 선순환 구조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을 지역우수 인재(외국인 유학생),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2023년

1월부터 10개월간 시범 운영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자격은 지역 우수인재(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한국어 능력(TOPIK 3급)을 갖춘 국내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로 고흥군에 5년 이상 취·창업 또는 거주하는 조건이다.

동포가족은 2년 이상 고흥군에 살기주하고 있는 동포 또는 가족, 시 단위 이상 도시지역에 거주하다 가족과 함께(배우자 또는 자녀) 고흥군으로 이주한 동포를 대상으로 한다.

군은 앞으로 지역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자·석류, 감·미역 등 지역특화 산업, 노인 돌봄 보건의료 분야, 조선소 등에 인력을 우선 투입할 예정이다. 외국인 정착을 위해 한국어 교육, 동반자녀 학습 지원 등 맞춤형 정착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보성 녹차문화공간 ‘붓재’ 방문객 역대 최다

올 7만7000명 코로나 이전 회복

보성 녹차문화공간인 ‘붓재’가 올해 7만7000여 명이 찾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보성군은 2015년 문을 연 녹차 문화공간인 ‘붓재’에 올해 7만7465명이 찾는 등 개장 이래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11월 말 기준 카페인 그린다향과 특산물 판매장인 그린마켓의 매출액이 4억140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은 90%, 방문객은 93% 증가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인 2019년 전체와 비교하면 매출은 34%, 방문객은 83% 증가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붓재를 찾은 관광객은 2019년 6만2000명이었으나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2020년 1만7000명으로 줄었고, 작년에는 4만5000명을 기록했다.

보성다향대축제, 보성차밭 빛축제, 보성세계차 엑스포 등 굵직한 행사들이 열리지 않거나 비대면 형식으로 치러진 상황에도 방문객이 오히려 늘었다.

보성군은 붓재 활성화를 위해 그린다향에 빈백(Bean Bag) 소파를 도입하고, 휴가철에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방문객 성별이나 연령별 기호를 분석해 녹차빙수, 그린티에이드, 말차리떼, 그린티스무디 등 다양한 대표 메뉴를 선보였다.

‘붓재’는 연면적 4만9000㎡ 규모로 1층에는 보성역사문화관이 들어섰고, 2층에는 카페 그린다향과 차 관련 제품을 살 수 있는 특산물 판매장 그린마켓이 입점해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붓재, 다향아트밸리, 한국차박물관과 해수녹차센터를 연계해 보성의 역사와 차 문화, 차 산업을 널리 알리는 복합문화관광지구로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광양시와 파프리카 생산 관계자들이 광양산 파프리카 말레이시아 수출에 앞서 상차식을 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광양산 파프리카 말레이시아 간다

일본 편중서 수출 다변화

광양시는 올해 광양산 파프리카 160CT(carton·5kg)를 말레이시아로 수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1월 해상운송으로 파프리카 40CT를 우선 수출했고, 나머지 물량인 120CT는 항공운송으로 수출했다.

시는 2007년부터 파프리카를 본격적인 수출전략품목으로 발굴해 관련 생산 기반을 꾸준히 확대 육성하고 있다.

2013년 수출 100만달러를 달성하는 등 파프리카 수출을 통한 재배농가의 소득 증대와 농산물 수출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또한 기존 일본에 편중돼 있던 파프리카 수출을 올해부터 중국시장을 개척하는 등 수출국 다변화를 통한 유통망 확보에 힘쓰고 있다.

특히 파프리카 말레이시아 수출은 파프리카의 장거리 수출을 위한 첫걸음으로, 장거리 수출 시 파프리카 선도 유지의 가능성과 다양한 수출국의 시장성 평가를 확인하는 가능자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신 광양시 매실원예과장은 “앞으로도 광양산 농산물의 수출 활성화와 다양한 판로 확보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 광양농산물수출물류센터를 전남 농산물 수출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구례군, 적극행정 펼친 우수 공무원 선정

구례군이 적극 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22년 하반기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

구례군은 균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업무를 추진한 친환경 농정과 박향숙 마케팅팀장, 기획예산실 정책혁신팀, 환경교통과 양희원 주무관, 건설과 수해복구팀, 주민복지과 장연희 통합조사관리팀장 등 우수등급과 장려 등급을 각각 선정했다.

군은 공직사회 적극 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선발 대상을 2건에서 5건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한 선발을 위해 1차 적격심사, 2차 내부 심사, 3차 외부 심사 등 3단계 심사과정을 거쳐 우수 등급 3건과 장려 등급 2건을 선발했다.

우수 등급은 농특산물의 판로 확보를 위해 국내

외 시장 개척을 한 ‘친환경 농정과 박향숙 마케팅팀장’과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해 인구 활력 시작을 추진한 ‘기획예산실 정책혁신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제한으로 폐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한 ‘환경교통과 양희원 주무관’이 뽑혔다.

홍수 피해 복구와 항구적 예방을 위해 지구 단위 종합 복구 사업을 추진한 ‘건설과 수해복구팀’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로 취약계층 수해를 확대한 ‘주민복지과 장연희 통합조사관리팀장’이 장려 등급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직원들은 구례군청 정무시 때 상장 수여와 함께 법령에서 정한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여수시 ‘안심식당’ 74곳 추가

여수시가 올해 안심식당 74개소를 추가로 지정, 총 371개소로 확대 운영 중이다.

여수시 ‘안심식당’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걱정 없이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여수시가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이다.

지정 요건은 음식 덜어먹기와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 3대 실천과제를 준수하는 음식점소이다.

안심식당에는 식사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과 스티커가 지원되고,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와 ‘여수맛’ 앱에 등록, 홍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금 3억7000만원 지급

올해 306명 선발

재단법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는 올해 장학생 306명을 선발해 장학금 3억70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236명의 장학생에게 지원한 2억9000만원 대비, 올해 장학 규모를 확대한 결과 306명에게 3억7000만원을 지원하게 됐다.

2022년도 장학생 선발 분야는 성적우수, 특기, 학력신장, 다자녀, 청학, 희망드림, 국제교류 장학금 등 7개 분야로 초등학생 28명, 중학생 59명, 고등학생 106명, 대학생 113명이다.

재단법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는 지난 2001

년 설립된 이후 작년까지 성적우수, 학력신장, 저소득, 외국인 유학생 등 2415명에게 21억8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인재육성장학회는 내년부터 IT분야와 수목 관리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일정 수준의 어학 능력을 취득한 시민 장학생도 선발하는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이사장인 노관규 순천시장은 “인재양성이 국가의 화두로 떠오른 지금 지역의 인재들이 마음 놓고 학업에 열중하는 환경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에도 장학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